

지역 공동체연대를 통한 청소년 지원 운동 연구
『시흥YMCA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동사례를 중심으로』

김진곤(시흥YMCA)

요약

본 글은 학교 밖 청소년 개인(가정)적 측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공동체 내의 대안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동을 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09년~2015년까지 진행된 시흥YMCA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대안학교 드림 프로젝트의 활동 과정을 통해 나타난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소통의 과정을 통한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시흥YMCA가 2009년부터 7년째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대안 학교 드림 프로젝트’는 지역과 마을 공동체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역의 공간 기부, 지역민의 재능기부, 지역민의 후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카페 티모르’, 1인 CEO 활동 등의 각자 개인의 달란트를 키우는 예체능과 문화, 지역 봉사활동, 검정고시 등의 개인프로젝트, 제주도 성장 여행, 600여km의 자전거 국토 순례, 6개월간이 해외 장기봉사활동 등의 팀 프로젝트, 음악회, 연극제, 뮤지컬공연 등의 공동체 프로젝트를 1년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과정을 통해 그동안 드림 프로젝트 참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복귀, 중 고등검정고시 합격, 자신의 숨겨진 달란트를 발견하여 실용음악과, 사진학과 디자인과, 미술대학 등의 대학입학, 취업 등의 성과를 매년 내고 있으며, 이러한 시흥YMCA 드림 프로젝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동이 시흥시와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영향을 주어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성과와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하나로 경기도 13개 시군구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해밀교실 운영지침에 시흥YMCA 드림 프로젝트 모델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활동 모델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 성과와 2015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적지 않은 운동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키워드 : 지역공동체,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운동, 시흥YMCA

1. 문제 제기

해마다 6~7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벗어나고 있고¹⁾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교육과학기술부, 2011)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 중단 이후 다른 진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적절한 보호 없이 은둔하는 NEET 족이²⁾ 발생하고 있으며,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적 문제로는 심리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오승근, 2009; 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과 우울, 자살 등의 2차적 정서장애 발생(이치열, 2010;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과 더불어 속한 가정이 파탄 위기에 빠진다. (김혜영, 2001)

또한, 사회적 문제로는 가출, 폭력, 비행, 성폭력(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 2002)에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범죄에 연루될 비율이 높아지며, 가출 팸, 성매매, 불법취업(2009. 한국 청소년상담원)에 빠지는 문제에 노출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당사자 개인이나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이 속한 지역사회 관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2. 연구목적

학교 밖 청소년 개인(가정)적 측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공동체 내의 대안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체계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동 연구를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09년~2015년까지 진행된 시흥YMCA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대안학교 드림 프로젝트의 활동 과정을 통해 나타난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소통의 과정을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2009년~2015년) 7년간의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대안학교 드림 프로젝트 활동 고찰을 하고자 한다.

시흥YMCA가 2009년부터 7년째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대안학교 드림 프로젝트는 지역의 관점, 마을의 관점에서 탈학교 청소년을 위해 지역의 공간기부, 지역민의 재능기부, 지역민의 후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카페 티모르', 1인 CEO 활동 등의 각자 개인의 달란트를 키우는 예체능과 문화, 지역 봉사활동, 검정고시 등의 개인프로젝트, 제주도 성장 여행, 600여km의 자전거 국토 순례, 6개월간 해외 장기봉사활동 등의 팀 프로젝트, 음악회, 연극제, 뮤지컬공연 등의 공동체 프로젝트를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흥YMCA 드림 프로젝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동이 지방정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영향을 주어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를 제정³⁾하는 성과와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시흥YMCA의 모델을 바탕으로 경기도 13개 시군구로 사업을 확대⁴⁾ 하면서 해밀 교실 운영지침에 시흥시 모델을 제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1) 2012년-74,365명, 2013년- 68,188명, 2014년-60,568명,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sae.re.kr/index>

2) 교육, 훈련을 받지 않고 고용상태도 아닌 부류. NEET족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3) 제정 2013. 12. 17 조례 제 1350호

일부개정 2014. 12. 12 조례 제1398호

4) 2013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해밀 교실 운영. 고양시, 군포시, 광명시, 광주시, 남양주시, 수원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용인시, 의정부시(총 13개 시군구)

이러한 운동의 성과를 시기별, 프로그램별로 지역과 어떻게 소통하였는지, 이를 통해 어떤 과정으로 지방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1) 학교 밖 청소년 개념⁵⁾

1980년대 후반,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관심 증가하였으며, 중도 이탈 청소년, 자퇴생, 탈학교 청소년, 학업 중퇴, 학업 탈락, 등교 거부 청소년 등으로 지칭되었고, 이러한 용어는 정상적인 학교에서 벗어난 일탈이나 패배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였고, 이러한 용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정의하는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2002년부터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현재는 학업 중단 청소년보다 포괄적 의미를 가진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현상’을 기술하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업 중단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모두에서 고려한다는 의미로 학교 밖 청소년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5.5.29)의거 정의된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 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 18조에 따라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 정의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⁶⁾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은 지난 3년의 통계를 보면 [표 1]와 같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2014학년도 60,568명, 하루에 약 166명이 학교를 두고 있다

2014년도 전국 학교 밖 청소년 60,568명을 광역시 기준으로 보면 [표 2]와 같이 서울과 경기도에 52.3%나 넘고 있다.

[표 1] 학교 밖 청소년 발생 현황

(단위: 명)

	전국	경기도	비율
2012	74,365	20,341	27.4%
2103	68,188	19,602	28.4%
2014	60,568	17,587	29.0%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4). 학교 밖 청소년 미래전략포럼 결과 발표

6)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표 2] 2014학년도 광역시별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단위: 명)

2014	전국 : 60,568	비율
경기	17,587	29.0
서울	12,134	23.3
부산	3,518	5.8
대구	2,379	3.9
인천	3,035	5.0
광주	1,729	2.9
대전	2,279	3.8
울산	1,236	2.0
세종	131	0.2
강원	1,635	2.7
충북	1,626	2.7
충남	2,143	3.5
전북	1,827	3.0
전남	1,733	2.9
경북	2,091	3.5
경남	2,898	4.8
제주	587	1.0

2012~2014학년도 3년간 경기도 내 학업 중단 청소년 중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학업 중단 청소년의 사유는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로 분류하였을 때 [표 3]과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2014학년도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전체 고등학생 학업 중단 청소년 6,651명 중 4,238명으로 6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

(단위: 명)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2012	539	283	115	4,185	4,042
2013	289	197	315	4,954	1,912
2014	305	185	227	4,238	1,696

2012~2014년도 경기도 시군구별 학업 중단 청소년의 현황은 표4와 같다.

[표 4] 경기도 시군구별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

	2012				2013				2014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계	6,124	5,042	9,175	20,341	5,627	4,917	9,058	19,602	5,327	4,317	7,943	17,587
수원시	548	482	841	1,871	490	468	835	1,793	558	435	886	1,879
성남시	918	601	990	2,509	825	623	983	2,431	727	514	835	2,076
부천시	271	322	712	1,305	230	287	648	1,165	221	252	601	1,074
안양시	297	265	595	1,157	276	273	525	1,074	247	212	413	872
과천시	114	77	99	290	79	58	82	219	86	66	78	230
안산시	221	252	588	1,061	190	258	539	987	138	208	535	881
용인시	944	576	610	2,130	848	554	574	1,976	812	496	589	1,897
군포시	138	101	278	517	143	112	317	572	111	90	189	390
의왕시	84	43	47	174	50	44	49	143	65	40	60	165
시흥시	107	137	390	634	98	110	324	532	89	94	198	381
평택시	112	139	347	598	119	104	381	604	97	94	306	497
화성시	301	201	340	842	330	229	290	849	320	194	264	778
오산시	46	33	91	170	55	57	95	207	67	42	85	194
광명시	92	88	157	337	100	83	175	358	117	98	162	377
광주시	72	76	124	272	69	67	114	250	72	57	71	200
하남시	56	55	103	214	59	46	101	206	46	38	90	174
김포시	116	98	133	347	114	114	188	416	111	87	201	399
이천시	79	63	153	295	66	48	228	342	67	46	151	264
안성시	66	56	135	257	97	66	109	272	86	61	116	263
여주군	14	26	82	122	9	19	129	157	19	22	67	108
양평군	34	28	77	139	22	31	266	319	31	50	67	148
고양시	725	601	872	2,198	682	562	773	2,017	602	492	747	1,841
남양주시	238	222	376	836	217	193	429	839	219	206	366	791
구리시	93	73	91	257	83	56	105	244	55	50	85	190
의정부시	133	149	380	662	99	137	246	482	82	126	306	514
파주시	154	132	230	516	160	152	244	556	174	129	190	493
동두천시	28	34	66	128	24	28	79	131	10	22	62	94
양주시	66	45	113	224	61	67	97	225	51	41	59	151
포천시	42	35	105	182	23	46	88	157	28	32	98	158
가평군	13	23	24	60	6	15	34	55	12	13	34	59
연천군	2	9	26	37	3	10	34	47	7	10	32	49

3. 학교 밖 청소년 특성⁷⁾

학교 밖 청소년의 최근 추세는 인문계 및 전문계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교육통계서비스, 2011), 여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며(교육통계서비스, 2011), 고1 > 중3 > 중2 > 중1 > 고2의 순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가족포럼, 2010)

이들 학교 밖 청소년 중 배회 은둔형 58.5%(김선아, 2010)로 나타나고 나고, 아르바이트 경험을 89.2%(고용노동부, 2009)가 하고 있으며 주요 업종으로는 유흥업소, 배달, 노래방 도우미, 식당 종업원, 일용직(전경숙, 2006; 금명자, 200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오혜영 외 2011)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개인 요인으로는 자아 통제 및 자기조절 기능, 자아 정체감,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등의 존재감이 부족하고, 높은 수준의 우울, 걱정, 무력감, 불안감 등이 높고, 청소년 비행 경험

7) 오혜영 외(2011). 학업 중단 청소년 학업 복귀 강화 프로그램 개발. 한국 청소년상담원.

이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보인다.

둘째, 가정요인으로는 결손가정,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력 지위, 가정폭력, 학대 등을 경험한 특성을 보인다.

셋째, 또래 요인으로는 또래들의 괴롭힘, 또래와 사귀는 방법 미숙, 불량 친구와 약물남용 친구들을 경험하는 특성을 보인다.

넷째, 학교 요인으로는 학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낮은 학교 성적, 결석이나 지각 등과 같은 수업결손, 교칙 위반이나 교칙의 엄격성, 교사의 정서적 지지가 낮고, 교사와의 갈등을 경험하는 특성을 가진다.

다섯째, 지역사회요인으로는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청소년 주변의 지지환경이 부족하고, 청소년이 배회하거나 외박할 수 있는 주변 환경과 대중문화를 지향하는 경험적 특성을 가진다.

4. 학교 밖 청소년 유형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분류 4단계의 구분과 14개의 유형, 그리고 유형별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⁸⁾

첫째, 학업 중단 이후 현재 상태 및 하는 일(이숙영 ■ 남상인, 1997년)의 구분으로 정착형과 미정착형으로 나타난다. 정착형의 특성은 진학 또는 취업했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기술학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훈련을 하고 있으며, 미정착형은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소년원, 보호관찰소, 병원 등에 수용된 관리되거나 전혀 보호 및 관리되지 않은 특성을 나타낸다.

둘째,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향후 계획(이경상·조혜영, 2005년)의 구분으로 순수진학형, 취업형, 아르바이트형, 진로 미결정형 등으로 유형이 나누어진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순수진학형은 학업을 계속 유지 학업을 마치고 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정규직업을 가지려는 특성을 보이며, 취업형 유형은 학업 유지보다는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아르바이트형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면서 독학이나 검정고시로 진학 준비 또는 취업할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만 하는 특성으로 나타나고, 진로 미결정형은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특성으로 나타난다.

셋째, 학업 중단 이후 하는 일(윤철경, 2010년)의 구분으로 학습형, 취업 알바형, 무업(NEET⁹⁾형, 비행형, 장애형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습형은 학력 취득이나 취업, 인턴십, 교양교육 등을 위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 특성으로, 취업 알바형은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특성으로, 무업(NEET)형은 별로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는 유형(은둔형 포함)의 특성으로, 비행형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사법적 경험을 가진 특성으로, 장애형은 지적, 정서적 장애가 있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넷째, 학업 중단 청소년 잠재계층(김범구·조아미, 2013)의 구분으로 비결정중심형, 미래준비형, 진학 준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결정중심형은 특별한 계획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문항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미래준비형은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과 취업 준비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특성이 있으며, 진학 준비형은 복학 및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준비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특성이 나타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중단 이후 겪는 경험에 관한 연구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분석한 내용¹⁰⁾을 바탕으로 보면 초기에는 1개~3개월까지는 해

8)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관련 자료 모음집. 2015년 p5

9) NEET란 'Not in Employment or Training'을 줄인 것으로 15~24세 사이의 교육,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무업자를 의미한다.

10) 권해수외, 2007; 박현선, 2004; 변숙영, 이수경, 2011; 성윤숙, 2005; 오혜영 외, 2011; 정현주, 2007; 주영

방감을 느끼고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 증가하고, 불규칙하고 무의미한 생활을 하며, 문제행동이 악화하고, 관계(가족, 친구 등) 문제가 발생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게 된다.

이들 학업 중단 청소년의 부적응 특성(오혜영 외, 2012)으로는 목표의 부재로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장래 희망의 부재, 욕구의 잦은 변동, 무기력함, 학교에 다니는 것의 의미 상실의 부적응 특성이 나타나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시간약속을 지키지 못함, 올빼미족, 숙식이 불안정함, 부모가 방치함, 울타리에 대한 양가감정의 부정적 특성이 나타나고, 빈약한 지지환경은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과 빈약한 사회적 지지의 부정적 특성이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군과 적군 구별, 주변 어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신의 이야기를 잘 개방하지 않음, 공감 능력 결여,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부적응 특성이 나타난다.

5.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적 근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 근거는¹¹⁾ [표 5] 과와 같이 헌법 제34조 4항, 청소년기본법 제49조 2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17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잘 나타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제3조에 나타내고 있다.

[표 5]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적 근거

구분	법률	조항	내용
중앙 부처	헌법	제34조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청소년기본법	제49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 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제17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삭제<2014.5.28.> [시행일: 2015.5.29.] 제 1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2015.5.29 [법률 제 12700호, 2014.5.6.제정
경기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2007

11) [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6. 학교 밖 청소년 국내 정책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내 정책과 시흥시의 지원정책은 가출청소년, 비행 청소년의 위기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됐다.

위기(가능)청소년¹²⁾의 수는 증가하나 지역사회 지원체계는 취약하고 위기청소년 방치 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청소년위원회 출범('05.4.)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¹³⁾(CYS-Net) 구축”을 주요정책과제로 추진하여 개별적, 파편화되었던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형·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였다.

먼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위기청소년 보호·관리 개선방안」상정('09.05.01)을 통하여 복지부 조치사항으로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지자체 관련 기관 간 연계강화를 위한 총리 훈령 제정, 학업 중단자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을 마련하였다.

복지부, 교과부 합동「학교 부적응·학업 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방안」국무회의 보고의 주요 내용으로 CYS-Net 연계망에 관련 기관 의무가입·협조토록 총리 훈령 제정, 전문상담교사 미배치·Wee센터 미설치 지역의 학생은 교육청에서 CYS-Net으로 연계 및 우선 사례 관리하여 CYS-Net과 Wee센터 간 협력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CYS-Net 관련 기관 간 연계강화를 위한 총리 훈령 제정 추진을 통해 CYS-Net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에 불가결한 기관 간 의무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총리 훈령을 제정 추진¹⁴⁾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총리 훈령) 공포·시행('09.11.27~)하였다.

시흥시는 시흥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CYS-Net 출범 (2010. 4월 출범)「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하였으며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조례 (제정 2013.1. 2.17 조례 제1350호) 제정을 하였고, 2015. 5. 29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범주 속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해오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와 더불어, 비행, 범죄 가담률의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써 정부의 각 부처인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문화부 등의 각각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펼치게 된다.¹⁵⁾

교육부는 Wee 프로젝트 확대(Wee 클래스-단위학교, Wee센터-교육청, Wee스쿨-시.도교육청) 및 운영을 통해 학교 부적응 예방, 학교 적응력 향상 지원을 하였고 또한 일반 학급과 구분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였다. 또한 위탁교육 활성화를 통해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두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밖 기관을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15~24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무교육 향상, 진로지도, 취업 알선 등 맞춤형 무료 직업훈련을 시행(12개월 이내)하였고 훈련생에게는 자립 수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비행·범죄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 징계자, 기소유예자, 보호처분 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의 비행 유형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소년원 입소 청소년에게는 학업 연계,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인력(퇴직 교사, 경찰 직업군

12) 위기청소년(Youth at Risk) : 학교·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가져 장래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약 93만명으로 추정)

13) 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

14) 추진경과 : 초안마련('09.5) → 이해관계자의견수렴('09.5~7) → 부내협의('09.7~8) → 부처의견조회('09.8) → 규제여부심의('09.8~9) → 법제심사('09.9.21~11.9)

1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4). 학교 밖 청소년 미래전략포럼 결과발표, 여성가족부 정책자료(2013).

인 또는 상담전문가)을 배치하는 배움터 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을 통해 소외 계층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카드(5만 원)를 제공하고, 스포츠바우처 제도를 통해 만 5세~19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월 7만원 한도 내 희망 스포츠 강좌 수강 지원)

7.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경기도는 아래 [표 6]와 같이 2013년부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문상담프로그램을 18개 시군구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실 프로그램인 해밀 교실을 1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표 6]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현황

구분	전문상담프로그램	해밀 교실
대상자	만 9세 이상 ~ 24 이하 경기도내 학교 밖 청소년	
내용	개인 상담을 통한 개별 목표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개인상담, 학력취득 및 직업훈련, 멘토링, 인턴십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개인 및 집단상담,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업을 중단한 후 복교, 대안학교 입학, 취업 등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프로그램	개인상담 및 사례관리, 복지지원, 멘토링, 인턴십	필수영역)상담지원, 복지지원, 학습지원, 문화예술 체험 및 동아리 운영 선택영역) 문화 공간, 캠프 등
운영 기관	18개 시.군) 가평, 고양, 군포, 광명, 광주, 김포, 남양주, 부천, 수원, 성남, 시흥, 용인, 안산, 안양, 양주, 의정부, 화성, 파주	13개 시.군) 고양, 군포, 광명, 광주, 남양주, 수원, 성남,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용인, 의정부

8. 국내.해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사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는 [표 7]과 같이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재)가 발표한 자료¹⁶⁾에 의거 크게 서울시, 시흥시, 군포시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16) (재)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2015.4.8.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토론회 발표문)

[표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지역	서울시	시흥시	군포시
사업명	도시형 대안학교	드림프로젝트	'꿈 엔진' 프로젝트
운영 방향	작은 학교, 소통하는 배움터, 맞춤형 배움터, 프로젝트 학습, 치유하는 공동체	위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성장	자조모임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 진행, 평가
프로그램	프로젝트 학습, 문화 활동, 체험활동, 인턴십, 인문학, 학생자치활동 등	주5일 대안교육, 문화체험 및 동아리 활동, 직업탐방, 1인CEO활동, 자아성장 캠프	6개영역(상담, 복지, 학습, 취업, 문화체험 및 동아리, 캠프)
특징	징검다리 거점공간지정운영, 특성화시도	사회적 기업 '카페 티모르'운영, 나를 찾아 떠나는 자전거 국토순례,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재능기부 및 후원금, 물적 기부활용	연말 꿈엔진 콘서트를 통한 평가 버스킹(여름캠프) 및 심리극 캠프운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해외의 지원정책 및 지원 사례는 [표 8]과 같이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의 사례¹⁷⁾등이 있지만 본 절에서는 시흥YMCA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대안학교 드림프로젝트와 유사하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학업 중단을 막고 청소년의 졸업을 돕기 위해 198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The National Dropout Prevention Center/Network(NDPC/N) 미국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해외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국가	주요특성
프랑스	▶잠재적 학업중단 학생대상 교육.진로지도 ▶고등학교 중도탈락 위기학생 1년간 개별지도, 직업경험, 기초 문해력 교육 ▶학업중단 학생에게 기초학력능력증진, 직업훈련 병행하는 대안학교운영
영국	▶의무교육연수 확대(만18세) 및 다양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파트타임 일자리 제공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업장려금(교육지속수당)제공 ▶학교 단위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방교육청에 PRU을 설치하여 단위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학생의뢰, 적용프로그램 실시 후 복교 ▶학생 출석 전문 컨설턴트 배치
독일	▶학교 내 상담가, 사회복지사, 고용주가 협력하는 학교-직업연계 확대 ▶취약계층 청소년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성인교육센터에서 검정고시 프로그램 제공
스위스	▶전환학년 프로그램 실시 ▶사례관리-직업교육 강화

17) 윤철경외(2014).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전경숙(201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방안연구

미국의 The National Dropout Prevention Center/Network(NDPC/N) 센터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업 중단을 막고 청소년의 졸업을 돕기 위해 1986년부터 15가지의 다면적이면서 체계적인 전략을 만들어 오고 있다.

가) 학교와 지역사회 관점 - 청소년 학업 중단은 곧 사회의 문제이다

핵심 전략	내용
체계적인 개선 (Systemic Renewal)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 강화 학교의 기본방식 개선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School and Collaboration)	학생들의 성취경험을 얻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안전한 학습 환경 (Safe Learning Environment)	학교폭력 방지와 갈등해결 다루도록 가르침 긍정적인 사회태도와 효과적인 대인기술 익힘 안전한 배움의 환경조성

나) 기본적인 핵심 전략 - 역동적이며 의미 있는 학습 기회 제공

핵심 전략	내용
멘토링/튜터링 (Mentoring/Tutoring)	멘토와 멘티가 신뢰를 바탕으로 일대일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관계 튜터링은 학업적인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춤
서비스 찾기 (Service Learning)	학습과 관련된 지역사회 서비스 찾기
대안교육 (Alternative Schooling)	위험군에 속해있는 학생들에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과 학생들의 필요에 초점 맞춘 프로그램 제공
방과 후 교육의 기회제공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위와 같은 NDPC/N의 활동은 포괄적인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 공급해주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출석프로그램인 동시에 다양한 개입으로 학급 관리, 학생 수행, 부모 개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9. 시흥YMCA 사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대안학교 드림 프로젝트 사례-

1. 드림 프로젝트 정의

드림 프로젝트 정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들 스스로 깊이 있게 탐색하고 직접 창의적인 산출물을 창출해냄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발휘되는 것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드림 프로젝트의 목표는

첫째, 학습이 즐거운 교육이 되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자아실현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실현하며, 학습을 통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안에 숨어있는 참된 나를 찾아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 인간관계에서 신뢰 회복을 위하여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상을 구현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잠재된 개성과 능력을 계발합니다. 또한 진로-인턴십 프로젝트를 통한 나의 미래 찾기를 한다.

드림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는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과 실행, 평가 과정에 참여 청소년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는 개별화 맞춤형 프로젝트가 되도록 한다.

2. 시흥YMCA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대안학교 드림 프로젝트 활동 사례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배움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꿈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네 꿈이 무엇인냐고 물으면 나는 아직도 쉽게 대답이 나오질 않는다. 어떨 땐 흥미가 너무나 쉽게 찾아와 내 온 맘을 흔들어 버리기도 하지만, 곧 불꽃이 사그라져 꺼져버리듯 허무하게 내려앉아 버릴 때도 있다.

그리고 많은 날은 내 흥미가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기도 한다.

이러한 나를 두고 주변인들은 신뢰를 잃어 갔고, 나도 지쳐갔다.

그러나 지금 드림에서 나는 ‘꿈’이란 주제를 찾았다. 내 특성과 내 자질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담을 수 있는 내 그릇의 크기를 보고 있다.

강물이 술하게 많은들 무엇 하겠는가! 내가 얼마 담을 수 없는 그릇의 크기를 가졌는걸,

이제 나는 내 그릇의 크기를 키워가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경험과 작업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기적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¹⁸⁾

시흥지역에는 관의 간섭이나 예산 등을 지원받지 않고 민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건강한 시민으로 함께 성장을 도모하고자 시흥지역 14개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가 연대하여 ‘시흥시청 소년기관 네트워크’¹⁹⁾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18) 본 글은 2012년 드림프로젝트 소속 학교 밖 청소년이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탁법인 시흥YMCA) 소식지에 실은 글입니다.

19) 시흥YMCA,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흥시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정황종합사회복지관, 함연종합사회복지관, 대야종합사회복지관, 거모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정신보건센터, 시흥시가출여자단기센터,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시흥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목감종합사회복지관 총 14개기관

2007년부터 시흥YMCA 청소년부장 겸 시흥시청소년문화의집(위탁법인 시흥YMCA)관장의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다. 당시의 주요활동은 격월로 모여면서 시흥시 청소년의 주요과제 논의, 시흥시 청소년축제 기획 및 진행, 시흥시 청소년 대토론회 등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당시의 사무국을 시흥YMCA가 맡아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임은 다른 지역에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자발성과 결합성은 타 지역과 비교해 대단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흥지역의 다양한 청소년문제, 특히 소위 가출청소년, 비행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위기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두고 논의를 하였으며 그중 시흥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문제의 심각성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인프라나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대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결의를 하였다.

2009년 초 시흥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에서 시흥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장으로서 발령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흥지역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연간 6만 명~7만 명, 매일 168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현실, 시흥지역 내에서도 년에 500명~600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는 전체 학생 청소년에 1.5%에 불과하다.

시흥지역은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교육 혁신도시²⁰⁾이며, 경기도 교육청과 시흥시가 협약을 통해 중·고등학교 내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안 마련, 그리고 다양한 체험, 동아리 활동지원 등의 지원을 위해 매년 경기도 교육청이 15억, 시흥시가 45억, 총 60억을 총 5년간 예산을 투자하고 있었다. 이에 시흥시 교육혁신 지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에 학생 청소년을 위하여 60억을 투자할 수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60억 원의 1%인 6천만원이라도 예산을 집행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 등을 돕도록 주장하였으나 교육청과 시흥시 정책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흥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보호, 지원 등의 활동이 각 관련 기관 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1.5% 불과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관심을 두는 기관이나 단체, 공공기관인 시청, 시흥교육지원청 등 민관 모두 시흥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시흥지역 내에는 인가든 비인가든 대안학교가 한 곳도 없었으며, 수련관, 복지관 등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나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다.

이에 먼저 지역사회 내에서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학교 밖 청소년문제와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인이 소속되어 활동한 시흥지역 각종 위원회²¹⁾에서부터 시작하여 시흥YMCA 이사회, 회원조직 등의 의견수렴과 활동 방향에 대하여 논의가 1년간의 기간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대안학교 드림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밖 청소년 15명과 함께 지리산 둘레길 3, 4코스를 걸으면서 이들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 가장 힘들어하는 것,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거친 후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단체와 함께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대안교육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다. 2010년 현재 한국YMCA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 중인 원주YMCA 원주고등학교 김영하 총장, 광명YMCA 범씨학교 이영희 총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YMCA 대안 운동의 이념과 지역과 함께 하는 원주와 광명YMCA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시흥지역에서의 역할과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하여 2시간여 토

20)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경기도 혁신교육도시 ; 시흥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오산시, 구리시 총 6개

21) 청소년육성위원회등 시흥시 8개 위원회, 시흥교육청 4개위원회, 시흥경찰서 3개위원회 등 총 15개 위원회

론회를 진행하였다.

이후 구체화한 드림 프로젝트 활동을 위하여 시청, 시흥시 교육청 등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관련된 예산이나 향후 특별한 지원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지역민의 힘으로 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200여 명의 지역민이 참여한 가운데 고졸 피아니스트 윤효간씨를 모시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후원음악회'를 진행하여 6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렇게 모금된 후원금을 바탕으로 드디어 2011년 드림 프로젝트 1기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으나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참여를 요구할 방법이 없었기에(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복지관, 교육청 등 그 어느 곳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않기에 이들 청소년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흥YMCA 소속 지도자와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모집 포스터를 만들어 시흥지역 관내 거



의 모든 버스정류장에 게시하고 이들 청소년이 모일만한 장소에 직접 게시하는 방식으로 근 3달간 진행하여 총 15명의 청소년을 모집할 수 있었다.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인 300석 규모의 한울림 관에서 드림 프로젝트 1기 입학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예약을 하였다. 하지만 과연 아무 연관된 없는 15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입학식에 300여 명의 지역민의 참석하여 이들 청소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지역공동체로서의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 내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동의 필요성과 설득의 과정 등을 거치면서 일정 정도 합의된 지역의 마음이 입학식 날 250명의 참석으로 보여 주었고 입학하는 1기 드림 프로젝트 청소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드림 프로젝트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만들어 주고 싶은 지역사회는 무엇일까 하는 논의를 통해서 교육과정과 구성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드림 프로젝트의 교육과정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사회와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심각한 단절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금 단절을 극복하고 사회와의 소통, 가족과의 소통, 또래 집단과의 소통 통해 생의 다음 단계로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다리(bridge) 운동이 되어야 한다.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학업을 중단한 것일까?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꿈을 포기한 것일까?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은 본인의 삶에서 문화적 감수성, 다양한 체험 활동의 단절, 체육(신체)활동의 단절, 학창 시절만이 가질 수 있는(가져야 하는) 기억, 평생 추억의 단절 다양한 또래 집단과의 소통의 단절, 단기 목표에 대한 성과 성취 기회 단절 등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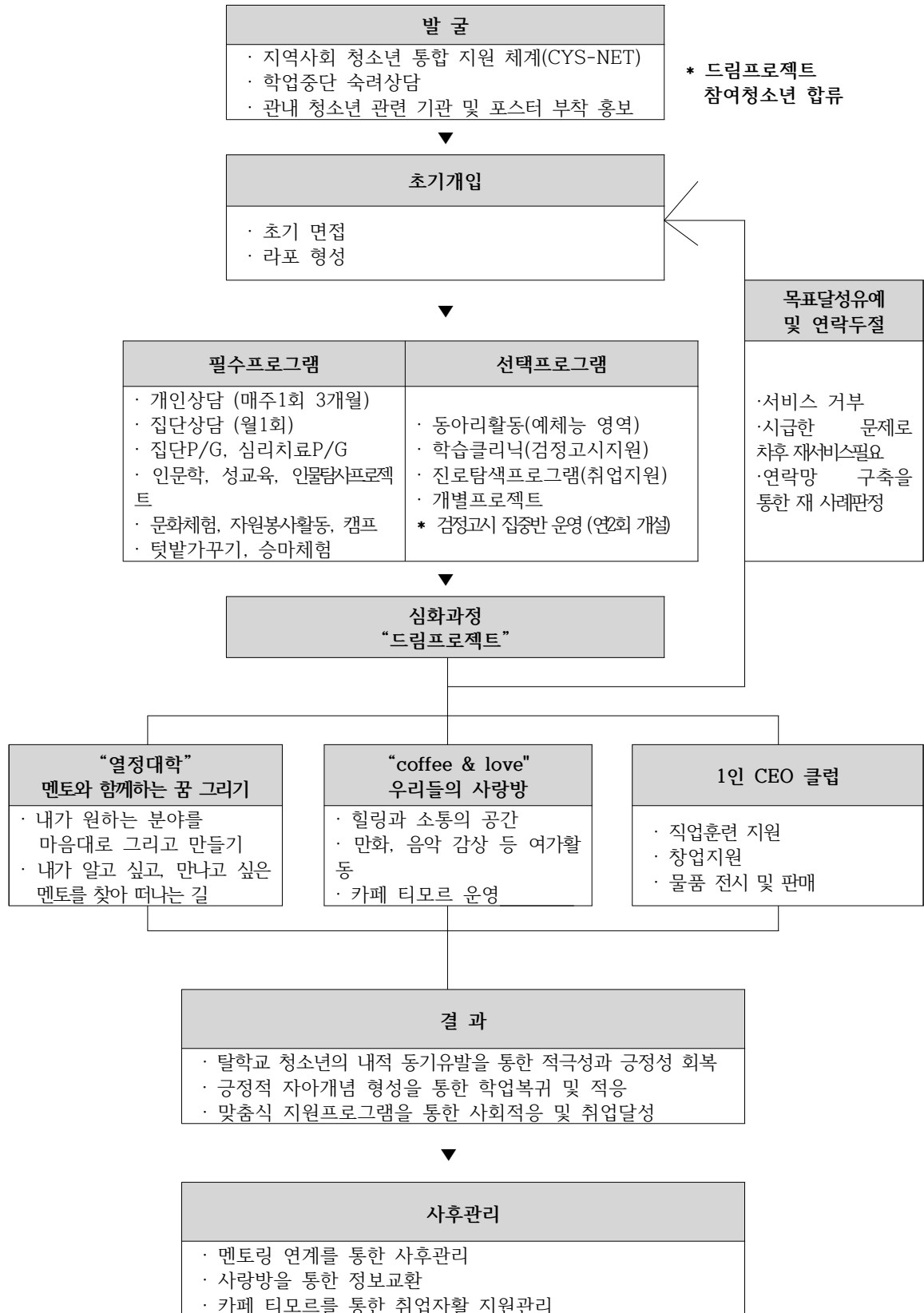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대안학교 드림 프로젝트 운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동을 시작하였고, 드림 프로젝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과 차이 없는 교육복지 운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²²⁾하도록 지역 마을과 함께 지원체계를 만드는 지역공동체 운동이다.

2009년부터 7년째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대안학교 드림 프로젝트는 지역의 관점, 마을의 관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역의 공간기부, 지역민의 재능기부, 지역민의 후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카페 티모르’, 1인 CEO 활동 등의 각자 개인의 달란트를 키우는 예체능과 문화, 지역 봉사활동, 검정고시 등의 개인프로젝트, 제주도 성장 여행, 600여km의 자전거 국토 순례, 6개월간이 해외 장기봉사활동 등의 팀 프로젝트, 음악회, 연극제, 뮤지컬공연 등의 공동체 프로젝트를 1년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22) 2조(교육이념),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中)

10. 드림 프로젝트 진행 매뉴얼²³⁾

23) 이 활동 매뉴얼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프로그램인 해밀 학교의 모델이 되었음.



참고문헌

김대환(1987) 청소년문제와 YMCA 체육의 역할

김태광(1991) 10대의 전화상담에 나타난 청소년문 분석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

오혜영 외(2011).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복귀 강화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김진곤(2012. 6월 12일~15일). 시흥YMCA.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동 실태조사

윤철경 외(2014).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연구

전경숙(201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방안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4).학교 밖 청소년 미래전략연구

(재)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정책토론회 (2015.4.8.)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토론회 (2015. 4. 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4). 학교 밖 청소년 미래전략포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관련 자료 모음집. 2015년 p5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탁법인 시흥YMCA) 소식지

은빛연어 ; 아동, 청소년 복지선교의 성서적, 신학적 이해

여성가족부 정책자료(2013).

교육기본법

시흥시민뉴스 www. <http://www.shpeople.net> 2013년 5월 24일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국가 법령정보센터, www.law.go.kr